

의류용 세제의 환경오염 및 안전성에 대한 태도 연구 -전주·군산을 중심으로-

신인수 · 유복선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A Study on the Attitude in Recogni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Safety of Laundry Detergents - centering around Jeonju · Gunsan -

Shin In-Su · Yu Bok-Seon

Dept. of Clothing, Wonkwang University
(2003. 4. 17. 접수)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attitude in using laundry detergents of housewives in Jeonbuk region centering around Jeonju?Guns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more reasonable and scientific clothing management and to help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laundry detergents. Both Jeonju(71.4%) and Gunsan(71.0%) got informations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through mass media like TV and Radio. As for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regenerated soap, comparing with the synthetic detergent, most people thought that the regenerated soap had better detergency, less water pollution, and less harm to the human being than the synthetic detergent. Accordingly, it showed they misconceived it. It showed that the aged consumers in Jeonju and Gunsan had all good attitudes for the practice. As roles of consumers toward the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e respondents who thought that the consumers roles were important took high percentage(Jeonju 86.8% and Gunsan 84.5%). In conclusion, they showed high degree of concerns in the recognition of necessity about the proper use of detergent, however, low in their attitudes in real life applications.

Key words: Detergent, Environment, Safety, Attitude; 세제, 환경, 안전성, 태도

I. 서 론

의생활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생활양식이다. 의복은 본래 생명을 보존하고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각 개인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간접적인 수

단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의복을 관리함에 있어 세탁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강윤석, 1995; 김성연, 1993).

근래에 피복세탁에서 합성세제의 사용이 점차 증가되어가고 1910년경 미국에서 세탁기가 처음으로 개발된 후 점차 기술이 개발되어 2차대전 직후 현재의 면모를 갖춘 세탁기의 출현으로 그에 적합한 합성세제의 소비를 더욱 증가시켜왔다(배정숙, 1991; 이진일, 1994).

본 연구는 2002년도 교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합성세제는 주성분인 합성계면활성제와 계면활성제를 도와서 세탁효과를 향상시키는 조제의 첨가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합성세제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와 조제로 인한 합성세제의 수질오염이 문제가 되어왔고 또 합성세제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자주 논의가 되고 있다(고광백, 1990; 김순심, 1990; 박찬모, 1992; 진주범, 1992).

최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의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지구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생태계의 파괴와 같이 환경위기를 초래하자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정부는 1990년 환경청을 환경부로 또한 1994년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하면서 본격적인 환경정책, 환경관리 교육을 펴기 시작했으나 환경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 부족과 환경규제의 실효성 부족으로 실패했다.

현대사회는 문화가 발달하는 생활양식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위생적인 의생활태도가 우리 삶의 전반에 자리잡게 되었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성향에 맞는 각종 의류소재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위생생활이 발달할수록 이에 필요한 자원도 다양해지고 소비량도 많아지고 있어 자원 사용과 폐기가 환경오염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에 따라 생분해가 잘되는 세제의 이용으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거나 자연회수율이 높은 상품에 환경마크를 주어 친환경합성세제, 친환경세탁기의 생산을 유도하였고 자원낭비를 막고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자 리필세제 용기 등이 출현했고 의류폐기물 들의 재사용과 재활용품 등이 증가하였다. 특히 합성세제의 사용에 따른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환경단체들은 친환경세탁법을 계몽했으며 하수종말 처리장의 시설과 처리 현황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세탁도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세탁에 주목하였다(차옥선, 1999).

이와 같은 피복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세탁은 현대사회의 과학화로 인한 자동화로 점차 다양화, 고급화된 세탁 방법으로 기계화 되었다. 세제는 고농축된 소량으로 세척효과를 단시간에 발휘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소비자의 인식 부족과 오래된 습관으로 많은 양의 세제 소비는 옷감을 손상시키거나 인체와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하천으로 배수되는 세제는 수질오염의 심각한 문제이므로 환경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건강한 의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보다 질 높은 의생활관리를 제안하고자 본 논문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세제의 소비량 증가와 세탁방법의 기계화에 따른 세제의 환경오염 및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생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사회의 심각한 환경문제의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전주·군산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2001년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설문지(questionnaire) 63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59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응답률 94.3%). 표본 설정시 전주는 행정구역상 42개 동 중에서 외곽지역에 위치하거나 조사에 어려운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변수의 분포 (단위: %)

변 수	구 분	지역별 분포		
		전주	군산	전체
연 령	30세 이하	32.8%	23.5%	29.7%
	31~35세	18.8%	19.0%	18.9%
	36~45세	29.7%	34.0%	31.1%
	46세 이상	18.8%	23.5%	20.4%
교육정도	중졸 이하	15.0%	15.6%	15.2%
	고졸	44.9%	50.8%	46.9%
	대졸 이상	40.2%	34.7%	37.9%
가구 월수입	100만원 이하	14.2%	14.0%	14.1%
	101~150만원	26.1%	29.5%	27.2%
	151~200만원	29.7%	30.5%	30.0%
	201만원 이상	28.2%	26.0%	27.4%
	무응답	1.8%	0.0%	1.2%
직 업	전업주부	47.8%	43.0%	46.2%
	취업주부	52.4%	57.0%	54.1%
가옥형태	아파트	41.1%	46.5%	42.9%
	기타	58.9%	53.5%	57.1%
가옥소유	자택	71.1%	78.0%	73.4%
	기타	28.9%	22.0%	26.6%
가족수	1~3명	28.2%	26.5%	27.7%
	4명	36.0%	40.0%	37.4%
	5명	24.1%	26.5%	24.9%
	6~8명	11.2%	7.0%	9.8%
	무응답	0.6%	0.0%	0.4%
전체응답자		100.0% (394명)	100.0% (200명)	100.0% (594명)

2개 동을 제외한 40개 동을, 그리고 군산은 1개 읍, 10개 면, 23개 동 중에서 읍·면단위를 제외한 동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여기에서 외곽지역에 위치하거나 조사에 어려운 3개 동을 제외한 20개 동을 대상으로 임의로 추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표 1>과 같다.

2. 조사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세계의 환경오염 및 안전성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에 관한 26문항을 포함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및 처리

자료는 SPSS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빈도분포를 검토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중심으로 각 변수들로부터 교차분석(cross-tabulate)하였다. 통계적 유의 검증은 χ^2 분석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4. 연구의 제한점

조사대상의 표집은 지역 선정에 있어서 전주·군산으로 제한되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표준

화되지 않은 것이므로 연구결과의 확대 해석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III. 연구결과 및 분석

1.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원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원에 대해 알아본 결과 <표 2>,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주에서는 TV, 라디오(71.4%)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를 얻고 다음으로 신문, 잡지(14.7%), 소비자 환경운동단체의 교육 및 홍보(8.9%) 순으로 나타났다. 군산은 TV, 라디오(71.0%)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를 얻고, 다음으로 신문, 잡지(14.5%), 소비자 환경운동단체의 교육 및 홍보(7.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살펴본 결과 군산지역에서 교육정도별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기타 변수에 따라서는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군산은 정보원으로써 가장 높게 나타난 TV, 라디오는 고졸 응답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문, 잡지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중졸 이하에서는 다른 교육정도와 다르게 정부 및 기업체의 홍보물과 가족이 정보원이라고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연령·교육정도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원 (단위: %)

	지역별 연령										지역별 교육정도							
	전주					군산					전주				군산			
	전체	30세 이하	31~35	36~45	46세 이상	전체	30세 이하	31~35	36~45	46세 이상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TV, 라디오	71.4	64.3	66.2	77.8	78.4	71.0	72.3	65.8	73.5	70.2	71.4	81.4	75.7	62.7	71.4	67.7	75.2	67.2
신문, 잡지	14.7	20.2	17.6	9.4	10.8	14.5	21.3	21.1	11.8	6.4	14.7	6.8	12.4	20.3	14.6	9.7	10.9	22.4
정부 및 기업체의 홍보물	1.8	1.6	2.7	2.6	0.0	3.0	2.1	2.6	2.9	4.3	1.8	3.4	1.1	1.9	3.0	9.7	2.0	1.5
소비자 환경운동 단체의 교육 및 홍보	8.9	10.1	9.5	7.7	8.1	7.5	4.3	5.3	7.4	12.8	8.9	5.1	9.6	9.5	7.5	6.5	8.9	6.0
전문서적	1.0	0.8	1.4	1.7	0.0	0.5	0.0	0.0	0.0	2.1	1.0	0.0	0.0	2.5	0.0	0.0	0.0	0.0
이웃사람	2.0	2.3	2.7	0.9	2.7	2.0	0.0	5.3	2.9	0.0	2.0	3.4	1.1	2.5	2.0	0.0	3.0	1.5
가족	0.3	0.8	0.0	0.0	0.0	1.5	0.0	0.0	1.5	4.3	0.3	0.0	0.0	0.6	1.5	6.5	0.0	1.5
합계 (사례수: 명)	100.0 (394)	100.0 (129)	100.0 (74)	100.0 (117)	100.0 (74)	100.0 (200)	100.0 (47)	100.0 (38)	100.0 (68)	100.0 (47)	100.0 (394)	100.0 (59)	100.0 (177)	100.0 (158)	100.0 (199)	100.0 (31)	100.0 (101)	100.0 (67)
통계적유의도	$\chi^2=17.85$ df=21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21					$\chi^2=19.47$ df=18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30					$\chi^2=21.86$ df=14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23				$\chi^2=18.38$ df=10 유의수준: $p<.05$ 유관계수=0.29			

NS: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2-1> 직업·소득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원 (단위: %)

	지역별 직업						지역별 소득									
	전 주			군 산			전 주					군 산				
	전체	전업주부	취업주부	전체	전업주부	취업주부	전체	~100만원	101~150	151~200	201만원~	전체	~100만원	101~150	151~200	201만원~
TV, 라디오	71.4	73.4	69.4	71.0	68.6	72.8	71.4	62.5	69.9	76.1	72.0	71.0	82.1	71.2	67.2	69.2
신문, 잡지	14.7	11.7	17.5	14.5	17.4	12.3	14.7	17.9	13.6	12.8	16.1	14.5	7.1	16.9	14.8	15.4
정부 및 기업체의 홍보물	1.8	2.7	1.0	3.0	1.2	4.4	1.8	1.8	3.9	1.7	0.0	3.0	3.6	3.4	1.6	3.8
소비자 환경운동 단체의 교육 및 홍보	8.9	11.2	6.8	7.5	10.5	5.3	8.9	12.5	7.8	8.5	8.5	7.5	0.0	8.5	9.8	7.7
전문서적	1.0	0.0	1.9	0.5	0.0	0.9	1.0	0.0	1.9	0.0	1.7	0.5	0.0	1.0	0.0	1.9
이웃사람	2.0	1.1	2.9	2.0	1.2	2.6	2.0	3.6	2.9	0.9	1.7	2.0	3.6	0.0	3.3	1.9
가족	0.3	0.0	0.5	1.5	1.2	1.8	0.3	1.8	0.0	0.0	0.0	1.5	3.6	0.0	3.3	0.0
합 계 (사례수:명)	100.0 (394)	100.0 (188)	100.0 (206)	100.0 (200)	100.0 (86)	100.0 (114)	100.0 (394)	100.0 (56)	100.0 (103)	100.0 (117)	100.0 (118)	100.0 (200)	100.0 (28)	100.0 (59)	100.0 (61)	100.0 (52)
통계적유의도	$\chi^2=13.33$ df=7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18			$\chi^2=5.89$ df=6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17			$\chi^2=21.04$ df=21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23					$\chi^2=13.76$ df=18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25				

NS: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3> 연령·교육정도에 따른 재생비누의 세척력에 대한 인지도 (단위: %)

	지역별 연령										지역별 교육정도								
	전 주					군 산					전 주			군 산					
	전체	30세 이하	31~35	36~45	46세 이상	전체	30세 이하	31~35	36~45	46세 이상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재생비누의 세척력	그렇지 않다	21.8	24.1	20.3	20.5	21.7	26.0	21.2	34.2	23.6	27.7	21.8	18.7	20.4	24.7	26.1	16.1	26.8	29.9
	그저 그렇다	30.2	34.1	27.0	30.8	25.7	25.0	34.0	23.7	23.5	19.1	30.2	23.7	31.1	31.6	25.1	19.4	19.8	35.8
	그렇다	38.8	28.7	48.7	44.5	37.0	37.5	27.6	31.6	45.5	40.4	38.8	40.6	42.5	32.9	37.2	41.9	40.6	29.8
	제품사용안함	9.1	13.2	4.1	4.3	14.9	11.5	17.0	10.5	7.4	12.8	9.1	16.9	5.1	10.8	11.6	22.6	12.9	4.5
합 계 (사례수: 명)	100.0 (394)	100.0 (129)	100.0 (74)	100.0 (117)	100.0 (74)	100.0 (200)	100.0 (47)	100.0 (38)	100.0 (68)	100.0 (47)	100.0 (394)	100.0 (59)	100.0 (177)	100.0 (158)	100.0 (199)	100.0 (31)	100.0 (101)	100.0 (67)	
통계적유의도	$\chi^2=32.61$ df=15 유의수준: $p<.01$ 유관계수=0.28					$\chi^2=16.09$ df=15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27					$\chi^2=21.43$ df=10 유의수준: $p<.05$ 유관계수=0.23			$\chi^2=14.24$ df=10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26					

NS: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3-1> 직업·소득에 따른 재생비누의 세척력에 대한 인지도 (단위: %)

	지역별 직업						지역별 소득										
	전 주			군 산			전 주					군 산					
	전체	전업주부	취업주부	전체	전업주부	취업주부	전체	~100만원	101~150	151~200	201만원~	전체	~100만원	101~150	151~200	201만원~	
재생비누의 세척력	그렇지 않다	21.8	22.8	20.9	26.0	22.1	29.0	21.8	28.6	26.5	18.8	26.2	26.0	25.8	20.3	24.6	34.6
	그저 그렇다	30.2	28.7	31.6	25.0	18.6	29.8	30.2	26.8	37.9	30.8	24.6	25.0	17.9	32.2	19.7	26.9
	그렇다	38.8	39.9	37.8	37.5	50.0	28.1	38.8	30.4	37.0	44.4	39.0	37.5	17.8	40.7	45.9	34.6
	제품사용안함	9.1	8.5	9.7	11.5	9.3	13.2	9.1	8.7	8.7	6.0	10.2	11.5	39.3	6.8	9.8	3.8
합 계 (사례수: 명)	100.0 (394)	100.0 (188)	100.0 (206)	100.0 (200)	100.0 (86)	100.0 (114)	100.0 (394)	100.0 (56)	100.0 (103)	100.0 (117)	100.0 (118)	100.0 (200)	100.0 (28)	100.0 (59)	100.0 (61)	100.0 (52)	
통계적 유의도	$\chi^2=0.93$ df=5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05			$\chi^2=11.38$ df=5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23			$\chi^2=17.26$ df=15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20					$\chi^2=37.28$ df=15 유의수준: $P<.05$ 유관계수=0.40					

NS: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2. 재생비누에 대한 인지도

세척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표 3>, <표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전주는 재생비누가 합성세제보다 세척력이 우수하다고 응답한 자가 38.8%, 우수하지 않다가 21.8%로 나타났으며, 군산은 재생비누가 합성세제보다 세척력이 우수하다고 응답한 자는 37.5%, 우수하지 않다는 26.0%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살펴보면 전주는 연령별(p<.01), 교육정도별(p<.05)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군산은 직업별(p<.05), 소득별(p<.05)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 변수에 따라서는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전주는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은 30세 이하에서는 재생비누가 합성세제보다 세척력이 우수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재생비누가 합성세제보다 세척력이 우수하다고 응답한 자 중 31~35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31~35세에 가까운 연령일수록 재생비누가 합성세제보다 세척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별로 살펴보면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재생비누가 합성세제보다 세척력이 우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재생비누가 합성세제보다 세척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은 직업별로 살펴보면 재생비누가 합성세제보다 세척력이 우수하다고 응답한 자는 전업주부(50.0%)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득별로 살펴보면 재생비누가 합성세제보다 세척력이 우수하다고 응답한 자는 월소득 151~200만원 집단에서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소득 100만원 이하(17.8%)

<표 4> 연령·교육정도에 따른 재생비누의 수질오염에 대한 인지도 (단위: %)

		지역별 연령										지역별 교육정도							
		전 주					군 산					전 주				군 산			
		전체	30세 이하	31~35	36~45	46세 이상	전체	30세 이하	31~35	36~45	46세 이상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수질 오염	그렇지 않다	10.9	8.6	13.6	12.8	9.5	10.5	6.4	15.8	11.8	8.5	10.9	15.3	11.3	8.9	10.0	16.2	8.9	9.0
	그저 그렇다	17.3	20.9	9.5	17.9	17.6	16.0	19.1	10.5	13.2	21.3	17.3	20.3	17.5	15.8	16.1	16.1	15.8	16.4
	그렇다	63.2	59.7	73.0	64.9	56.7	64.5	61.7	63.1	72.1	57.4	63.2	47.4	65.5	66.5	64.9	48.4	64.3	73.1
	제품사용안함	8.6	10.9	4.1	4.3	16.2	9.0	12.8	10.5	2.9	12.8	8.6	16.9	5.6	8.9	9.0	19.4	10.9	1.5
합 계 (사례수: 명)		100.0 (394)	100.0 (129)	100.0 (74)	100.0 (117)	100.0 (74)	100.0 (200)	100.0 (47)	100.0 (38)	100.0 (68)	100.0 (47)	100.0 (394)	100.0 (59)	100.0 (177)	100.0 (158)	100.0 (199)	100.0 (31)	100.0 (101)	100.0 (67)
통계적유의도		$\chi^2=21.91$ df=15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23					$\chi^2=13.76$ df=15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25					$\chi^2=21.88$ df=10 유의수준: p<.05 유관계수= 0.23				$\chi^2= 17.72$ df=10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29			

NS: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4-1> 직업·소득에 따른 재생비누의 수질오염에 대한 인지도 (단위: %)

		지역별 직업						지역별 소득									
		전 주			군 산			전 주					군 산				
		전체	전업 주부	취업 주부	전체	전업 주부	취업 주부	전체	~100만원	101~150	151~200	201만원~	전체	~100만원	101~150	151~200	201만원~
수질 오염	그렇지 않다	10.9	11.7	10.2	10.5	9.3	11.4	10.9	10.7	11.6	9.4	11.8	10.5	14.3	11.9	8.2	9.6
	그저 그렇다	17.3	15.4	17.3	16.0	14.0	16.0	17.3	26.8	14.6	17.9	14.4	16.0	10.7	16.9	13.1	21.2
	그렇다	63.2	64.4	63.2	64.5	60.9	64.5	63.2	50.0	65.0	66.7	64.5	64.5	39.3	66.1	72.1	67.3
	제품사용안함	8.6	8.5	8.6	9.0	5.8	9.0	8.6	12.5	8.7	6.0	9.3	9.0	35.7	5.1	6.6	1.9
합 계 (사례수: 명)		100.0 (394)	100.0 (188)	100.0 (206)	100.0 (200)	100.0 (86)	100.0 (114)	100.0 (394)	100.0 (56)	100.0 (103)	100.0 (117)	100.0 (118)	100.0 (200)	100.0 (28)	100.0 (59)	100.0 (61)	100.0 (52)
통계적 유의도		$\chi^2=3.68$ df=5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10			$\chi^2=3.67$ df=5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13			$\chi^2=13.66$ df=15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18					$\chi^2=35.58$ df=15 유의수준: p<.05 유관계수=0.39				

NS: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집단에서는 그 이상의 소득 집단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으며, 재생비누를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39.3%)가 다른 소득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생비누와 합성세제간에 수질오염정도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표 4 >, <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재생비누가 합성세제보다 수질오염이 적다고 응답한 자는 전주가 63.2%, 군산이 64.5%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살펴보면, 전주는 교육정도별(p<.05), 군산은 소득별(p<.05)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 변수에 따라서는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전주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재생비누가 합성세제보다 수질오염이 적다고 생각하고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수질오염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은 월소득 101만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재생비누가 합성세제보다 수질오염이 적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집단에서는 낮은 응답률을 보이며 재생비누를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가 35.7%로 다른 소득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체에 무해한 정도를 살펴보면, <표 5>, <표 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생비누가 합성세제보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응답한 자는 전주가 52.6%, 군산이 57.5%로 나타났으며, 전주·군산 모두 재생비누가 합성세제보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살펴보면, 전주는 연령별(p<.05), 군산은 소득별(p<.01)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전주는 재생비누가 합성세제보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응답한 자 중 36~45세(58.9%), 무

<표 5> 연령·교육정도에 따른 재생비누의 인체무해성에 대한 인지도 (단위: %)

		지역별 연령										지역별 교육정도							
		전 주					군 산					전 주				군 산			
		전체	30세 이하	31~35	36~45	46세 이상	전체	30세 이하	31~35	36~45	46세 이상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인체 무해성	그렇지 않다	13.5	10.1	19.0	14.5	12.2	15.5	14.9	21.1	13.2	14.9	13.5	17.0	13.6	12.1	15.6	6.5	18.9	14.9
	그저 그렇다	26.4	33.3	20.3	24.8	23.0	19.0	12.8	21.1	26.5	12.8	26.4	23.7	23.7	30.4	19.1	32.3	15.8	17.9
	그렇다	52.6	44.9	56.8	58.9	51.4	57.5	59.5	47.4	58.9	61.7	52.6	47.5	57.6	48.7	57.3	45.1	55.4	65.6
	제품사용안함	7.6	11.6	4.1	1.7	13.5	8.0	12.8	10.5	1.5	10.6	7.6	11.9	5.1	8.9	8.0	16.1	9.9	1.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명)		(394)	(129)	(74)	(117)	(74)	(200)	(47)	(38)	(68)	(47)	(394)	(59)	(177)	(158)	(199)	(31)	(101)	(67)
통계적유의도		$\chi^2=30.42$ df=15 유의수준: p<.05 유관계수=0.27					$\chi^2=13.54$ df=15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25					$\chi^2=9.97$ df=10 유의수준: NS 유관계수= 0.16				$\chi^2=17.79$ df=10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29			

NS: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5-1> 직업·소득에 따른 재생비누의 인체 무해성에 대한 인지도 (단위: %)

		지역별 직업						지역별 소득									
		전 주			군 산			전 주					군 산				
		전체	전업 주부	취업 주부	전체	전업 주부	취업 주부	전체	~100만원	101~150	151~200	201만원~	전체	~100만원	101~150	151~200	201만원~
인체 무해성	그렇지 않다	13.5	15.4	11.7	15.5	15.1	15.8	13.5	14.3	11.7	14.5	13.6	15.5	17.9	10.2	16.4	19.2
	그저 그렇다	26.4	24.5	28.2	19.0	17.4	20.2	26.4	35.7	24.3	25.6	24.6	19.0	14.3	20.3	14.8	25.0
	그렇다	52.6	53.2	42.9	57.5	62.8	53.5	52.6	37.5	56.3	55.5	53.4	57.5	35.7	64.4	64.0	53.9
	제품사용안함	7.6	6.9	8.3	8.0	4.7	10.5	7.6	12.5	7.8	4.3	8.5	8.0	32.1	5.1	4.9	1.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명)		(394)	(188)	(206)	(200)	(86)	(114)	(394)	(56)	(103)	(117)	(118)	(200)	(28)	(59)	(61)	(52)
통계적유의도		$\chi^2=3.09$ df= 5 유의수준: NS 유관계수= 0.09			$\chi^2=3.10$ df= 5 유의수준: NS 유관계수= 0.12			$\chi^2=18.58$ df=15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21					$\chi^2= 44.18$ df= 15 유의수준: p<.001 유관계수=0.43				

NS: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해하지 않다는 31~35세(19.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6세 이상에서는 재생비누를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가 13.5%로 높게 나타났다.

군산은 재생비누가 합성세제보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월소득 101~150만원(64.4%), 무해하지 않다는 월소득 201만원 이상(19.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집단에서는 재생비누가 합성세제보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5.7%로 가장 낮으며, 재생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32.1%로 높게 나타났고, 대부분이 재생비누가 합성세제보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환경오염에 대한 지식

스스로 평가한 환경오염에 대한 지식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한 질문은 5점 척도(①매우 낮다, ②낮다, ③그저 그렇다, ④높다, ⑤매우 높다)에 의해 측정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의 분석은 “매우 낮다”와 “낮다”는 한 개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낮다”로 묶고, “다”와 “매우 높다”는 한 개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높다”로 제시하였다. 그래서 “낮다”와 “높다”와 “보통이다”라는 3개 범주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환경오염에 대한 지식 정도는 <표 6>, <표 6-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교차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특이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전주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자가 60.9%, 높다는 20.3%이고, 낮다는 18.8%로 나타났다. 군산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자는 69.0%, 높다는 22.0%이고, 낮다는 9.0%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역별 환경오염에 대한 지식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군산이 전주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표 6> 연령·교육정도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지식 정도 (단위: %)

	지역별 연령										지역별 교육정도							
	전 주					군 산					전 주				군 산			
	전체	30세 이하	31~35	36~45	46세 이상	전체	30세 이하	31~35	36~45	46세 이상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낮다	18.8	23.3	12.2	11.3	13.6	9.0	6.4	13.2	5.9	12.8	18.8	22.1	14.7	22.2	9.0	3.2	11.9	7.5
보통	60.9	57.4	70.3	57.3	63.5	69.0	78.7	65.8	69.1	61.7	60.9	54.2	67.2	56.3	69.3	74.2	68.3	68.7
높다	20.3	19.4	17.6	21.4	23.0	22.0	14.9	21.1	25.0	25.5	20.3	23.7	18.1	21.5	21.6	22.6	19.8	23.9
합계 (사례수: 명)	100.0 (394)	100.0 (129)	100.0 (74)	100.0 (117)	100.0 (74)	100.0 (200)	100.0 (47)	100.0 (38)	100.0 (68)	100.0 (47)	100.0 (394)	100.0 (59)	100.0 (177)	100.0 (158)	100.0 (199)	100.0 (31)	100.0 (101)	100.0 (67)
통계적 유의도	$\chi^2=11.55$ df=12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17					$\chi^2=19.01$ df=12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29					$\chi^2=10.71$ df=8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16				$\chi^2=3.77$ df=8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14			

NS: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6-1> 직업·소득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지식 정도 (단위: %)

	지역별 직업						지역별 소득									
	전 주			군 산			전 주					군 산				
	전체	전업 주부	취업 주부	전체	전업 주부	취업 주부	전체	~100만원	101~150	151~200	201만원~	전체	~100만원	101~150	151~200	201만원~
낮다	18.8	16.5	20.9	9.0	7.0	10.6	18.8	23.2	21.4	16.2	16.9	9.0	3.6	6.8	13.1	9.6
보통	60.9	65.4	56.8	69.0	69.8	68.4	60.9	57.1	62.1	65.0	57.6	69.0	78.6	74.6	62.3	65.4
높다	20.3	18.1	22.4	22.0	23.2	21.0	20.3	19.6	16.5	18.8	25.4	22.0	17.9	18.7	24.6	25.0
합계 (사례수: 명)	100.0 (394)	100.0 (188)	100.0 (206)	100.0 (200)	100.0 (86)	100.0 (114)	100.0 (394)	100.0 (56)	100.0 (103)	100.0 (117)	100.0 (118)	100.0 (200)	100.0 (28)	100.0 (59)	100.0 (61)	100.0 (52)
통계적 유의도	$\chi^2=7.83$ df=4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14			$\chi^2=2.24$ df=4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11			$\chi^2=13.71$ df=12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18					$\chi^2=15.77$ df=12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27				

NS: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4. 환경오염을 고려한 세제 사용 및 실천 태도

세제 사용에 있어서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표 7>, <표 7-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주는 고려한다고 응답한 자는 41.6%, 그저 그렇다는 36.0%, 고려하지 않는다는 22.6%로 나타났다. 군산은 고려한다고 응답한 자는 44.5%, 그저 그렇다는 38.0%, 고려하지 않는다는 17.5%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살펴보면, 전주에서는 연령별로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변수에 따라서는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전주는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세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자 중 36~45세(52.1%), 46세 이상(41.9%)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자 중 30세 이하(41.1%), 31~35세(44.6%)가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

한 자 중 36~45세(28.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높은 연령에서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세제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들의 환경오염문제 실천태도의 정도는 <표 8>, <표 8-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전주는 좋지 않다고 응답한 자가 29.9%, 그저 그렇다가 38.8%, 좋다가 31.3%로 나타났다. 군산은 좋지 않다고 응답한 자가 36.1%, 그저 그렇다가 30.2%, 좋다가 33.7%로 나타났다. 전주는 실천태도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자보다 좋다는 응답자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군산은 실천태도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자가 좋다는 응답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집단간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주는 연령별(p<.05), 직업별(p<.01)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군산은 연령별로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변수에 따라서는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7> 연령·교육정도에 따른 환경오염을 고려한 세제 사용태도 (단위: %)

	지역별 연령										지역별 교육정도							
	전 주					군 산					전 주				군 산			
	전체	30세 이하	31~35	36~45	46세 이상	전체	30세 이하	31~35	36~45	46세 이상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	22.6	26.4	16.2	28.7	25.7	17.5	25.6	31.6	10.3	23.4	22.6	22.1	20.3	25.3	17.6	6.5	20.8	17.9
그저 그렇다	36.0	41.1	44.6	27.4	32.4	38.0	31.9	50.0	39.7	31.9	36.0	32.2	39.0	34.2	38.2	51.8	38.6	31.3
고려한다	41.4	32.6	39.2	52.1	41.9	44.5	42.5	36.8	50.0	44.6	41.4	45.8	40.7	40.5	44.3	42.0	40.6	50.7
합계 (사례수: 명)	100.0 (394)	100.0 (129)	100.0 (74)	100.0 (117)	100.0 (74)	100.0 (200)	100.0 (47)	100.0 (38)	100.0 (68)	100.0 (47)	100.0 (394)	100.0 (59)	100.0 (177)	100.0 (158)	100.0 (199)	100.0 (31)	100.0 (101)	100.0 (67)
통계적유의도	$\chi^2=23.08$ df=12 유의수준: p<.05 유관계수=0.24					$\chi^2=13.62$ df=12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25					$\chi^2=7.40$ df=18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14				$\chi^2=8.07$ df=18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20			

NS: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7-1> 직업·소득에 따른 환경오염을 고려한 세제 사용태도 (단위: %)

	지역별 직업						지역별 소득									
	전 주			군 산			전 주					군 산				
	전체	전업 주부	취업 주부	전체	전업 주부	취업 주부	전체	~100만원	101~150	151~200	201만원~	전체	~100만원	101~150	151~200	201만원~
고려하지 않는다	22.6	21.3	23.8	17.5	16.3	18.4	22.6	28.6	19.4	21.4	23.7	17.5	17.8	15.3	23.0	13.5
그저 그렇다	36.0	37.8	34.8	38.0	41.9	35.1	36.0	39.3	35.9	38.5	32.2	38.0	46.4	47.5	27.9	34.6
고려한다	41.4	40.8	41.8	44.5	41.9	46.5	41.4	32.1	44.6	40.2	44.1	44.5	35.7	47.3	49.1	52.0
합계 (사례수: 명)	100.0 (394)	100.0 (188)	100.0 (206)	100.0 (200)	100.0 (86)	100.0 (114)	100.0 (394)	100.0 (56)	100.0 (103)	100.0 (117)	100.0 (118)	100.0 (200)	100.0 (28)	100.0 (59)	100.0 (61)	100.0 (52)
통계적유의도	$\chi^2=1.60$ df=4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06			$\chi^2=1.39$ df=4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08			$\chi^2=5.43$ df=12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12					$\chi^2=14.53$ df=12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26				

NS: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8> 연령·교육정도에 따른 환경오염문제의 소비자 실천태도

(단위: %)

	지역별 연령										지역별 교육정도							
	전 주					군 산					전 주				군 산			
	전체	30세 이하	31~35	36~45	46세 이상	전체	30세 이하	31~35	36~45	46세 이상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좋지 않다	29.9	38.8	25.7	21.4	32.5	36.1	57.4	34.2	36.8	15.2	30.0	37.3	23.7	34.1	36.1	12.9	39.6	41.7
그저 그렇다	38.8	32.6	48.6	45.3	29.7	30.2	29.8	44.7	17.6	37.0	38.8	30.5	44.6	35.4	30.2	32.3	30.7	28.4
좋다	31.3	28.7	25.7	33.3	37.8	33.7	12.8	21.1	45.6	47.9	31.3	32.2	31.6	30.4	33.7	54.8	29.7	29.8
합계 (사례수: 명)	100.0 (394)	100.0 (129)	100.0 (74)	100.0 (117)	100.0 (74)	100.0 (200)	100.0 (47)	100.0 (38)	100.0 (68)	100.0 (47)	100.0 (394)	100.0 (59)	100.0 (177)	100.0 (158)	100.0 (199)	100.0 (31)	100.0 (101)	100.0 (67)
통계적유의도	$\chi^2=22.96$ df=12 유의수준: $p<.05$ 유관계수=0.23					$\chi^2=36.21$ df=12 유의수준: $p<.001$ 유관계수=0.39					$\chi^2=7.57$ df=8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14				$\chi^2=11.60$ df=8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23			

NS: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8-1> 직업·소득에 따른 환경오염문제의 소비자 실천태도

(단위: %)

	지역별 직업										지역별 소득							
	전 주					군 산					전 주				군 산			
	전체	전업 주부	취업 주부	전체	전업 주부	취업 주부	전체	~100만원	101~150	151~200	201만원~	전체	~100만원	101~150	151~200	201만원~		
좋지 않다	30.0	29.2	30.6	36.1	39.6	33.6	30.0	35.7	26.2	30.8	28.8	36.1	28.5	39.0	41.0	31.4		
그저 그렇다	38.8	44.1	34.0	30.2	24.4	34.5	38.8	30.4	44.7	37.6	39.0	30.2	39.3	32.2	24.6	29.4		
좋다	31.3	26.6	35.4	33.7	36.0	31.8	31.3	34.0	28.1	31.6	32.2	33.7	32.2	28.8	34.4	39.2		
합계 (사례수: 명)	100.0 (394)	100.0 (188)	100.0 (206)	100.0 (199)	100.0 (86)	100.0 (113)	100.0 (394)	100.0 (56)	100.0 (103)	100.0 (117)	100.0 (118)	100.0 (200)	100.0 (28)	100.0 (59)	100.0 (61)	100.0 (52)		
통계적유의도	$\chi^2=14.92$ df=4 유의수준: $p<.01$ 관계수=0.19					$\chi^2=2.82$ df=4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12					$\chi^2=10.37$ df=12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16				$\chi^2=20.45$ df=12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31			

NS: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즉, 전주는 실천태도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자 중 30세 이하에서 38.8%로 높게 나타났으며, 좋다고 응답한 자 중 46세 이상에서 37.8%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소비자 실천태도가 좋다고 사료되며 직업별로는 좋다고 응답한 자 중 취업주부가 35.4%, 전업주부가 26.6%로 취업주부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소비자 실천태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군산은 전주에서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낮을수록 실천태도가 좋지 않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즉 46세 이상(47.9%)에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소비자 실천태도가 가장 좋게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전주는 연령·직업에 따라 그리고 군산은 연령에 따라 주로 영향을 받으며 기타 변수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5. 환경오염문제의 대한 소비자의 역할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소비자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은 5점 척도(①항상 사용한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그저 그렇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에 의해 측정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의 분석은 “항상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한개의 카테고리(“그렇다”)로 묶고,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한개의 카테고리(“그렇지 않다”)로 묶고, “그저 그렇다”라는 3개의 카테고리(“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로 구분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환경오염에 대한 소비자의 역할 정도는 <표 9>, <표 9-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전주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자가 86.8%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

<표 9> 연령·교육정도에 따른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역할 (단위: %)

	지역별 연령										지역별 교육정도							
	전 주					군 산					전 주				군 산			
	전체	30세 이하	31-35	36-45	46세 이상	전체	30세 이하	31-35	36-45	46세 이상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필요하지 않다	3.3	3.9	5.4	0.9	4.1	3.5	2.1	2.6	2.9	6.4	3.3	6.8	2.8	2.6	3.0	9.7	2.0	1.5
그저 그렇다	9.9	11.6	6.8	12.0	6.8	12.0	19.1	10.5	10.3	8.5	9.9	6.8	14.1	6.3	12.1	6.5	11.9	14.9
필요하다	86.8	84.5	87.8	87.1	89.1	84.5	78.8	86.8	85.1	84.5	86.8	86.5	83.1	91.1	85.0	83.9	86.1	83.6
합계 (사례수: 명)	100.0 (394)	100.0 (129)	100.0 (74)	100.0 (117)	100.0 (74)	100.0 (200)	100.0 (47)	100.0 (38)	100.0 (68)	100.0 (47)	100.0 (394)	100.0 (59)	100.0 (177)	100.0 (158)	100.0 (199)	100.0 (31)	100.0 (101)	100.0 (67)
통계적 유의도	$\chi^2=14.13$ df=12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19					$\chi^2=4.94$ df=9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16					$\chi^2=15.34$ df=8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19				$\chi^2=18.02$ df=6 유의수준: p<.01 유관계수=0.29			

NS: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9-1> 직업·소득에 따른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역할 (단위: %)

	지역별 직업						지역별 소득									
	전 주			군 산			전 주					군 산				
	전체	전업 주부	취업 주부	전체	전업 주부	취업 주부	전체	~100만원	101~150	151~200	201만원	전체	~100만원	101~150	151~200	201만원~
필요하지 않다	3.3	2.7	3.9	3.5	2.3	4.4	3.3	5.4	3.9	1.7	3.3	3.5	3.6	1.7	3.3	5.8
그저 그렇다	9.9	10.1	9.7	12.0	3.5	18.4	9.9	10.7	8.7	8.5	11.9	12.0	32.1	8.5	11.5	5.8
필요하다	86.8	87.3	84.4	84.5	94.2	77.2	86.8	83.9	87.4	89.8	84.8	84.5	64.3	89.9	85.2	88.4
합계 (사례수: 명)	100.0 (394)	100.0 (188)	100.0 (206)	100.0 (200)	100.0 (86)	100.0 (114)	100.0 (394)	100.0 (56)	100.0 (103)	100.0 (117)	100.0 (118)	100.0 (200)	100.0 (28)	100.0 (59)	100.0 (61)	100.0 (52)
통계적유의도	$\chi^2=1.56$ df=4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06			$\chi^2=12.90$ df=3 유의수준: p<.01 유관계수=0.25			$\chi^2=9.42$ df=12 유의수준: NS 유관계수=0.15					$\chi^2=28.82$ df=9 유의수준: p<.001 유관계수=0.35				

NS: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렇다는 9.9%, 필요하지 않다는 3.3%로 나타났으며 군산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자가 84.5%로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는 12.0%, 필요하지 않다는 3.5%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전주·군산 모두 소비자의 역할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전주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집단간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군산은 교육정도별(p<.01), 직업별(p<.01), 소득별(p<.001) 등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기타 변수에 따라서는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군산은 교육정도별로 보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고졸(86.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필요하지 않다고 나타났으며, 교육정도가 높아질수록 그저 그렇다고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전업주부는 소비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자 중에는 취업주부가 많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소득별로 보면 대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월소득 101만원 이상의 집단 비해서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집단은 64.3%로 낮게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32.1%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군산은 교육정도·직업·소득에 따라 주로 영향을 받으며 기타 변수와는 무관하다고 보여진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전주시와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의류용 세제의 환경오염 및 안전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는 전주(71.4%)·군산(71.0%) 모두 TV, 라디오의 홍보를 통해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생비누에 대한 인지도는 합성세제와의 견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재생비누가 합성세제보다 세척력이 우수하며 수질오염이 적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주·군산 모두 연령이 높은 소비자의 실천태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역할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자(전주 86.8%, 군산 84.5%)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주부들이 세제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은 높게 나타난 반면, 그 실천 태도에 있어서는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세제의 사용량 증가 추세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제 업체의 세제의 무린화와 초소형화, 세제의 품질표시 및 규격화, 산업 폐수의 처리 등의 환경보호와 공해방지 대책의 적극 추진이 필요하며 전북지역 소비자의 세제에 대한 지식과 세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세제의 표준 사용량 준수, 합성세제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소비자의 의식개선과 실천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제업체와 소비자의 실천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윤석. (1995). 국내 의류용 세제의 최근 동향. *한국의류학 회지*, 19(1), 161-169.
- 고광백. (1990). 합성세제(Synthetic Detergents)의 생산 및 이용현황. *大韓土木學會誌*, 38(2), 48-50.
- 金聲連. (1993). *洗劑와 洗濯의 科學*. 교문사.
- 김성연. (1993). *環境과 洗劑*. *농촌생활과학*, 춘계, 19-21.
- 金聲連. (1993). *洗劑-現況과 環境汚染*. *성심여대 생활과학 연구논집*, 13(1), 99-114.
- 金成鎬. (1991). *洗濯洗劑의 消費者購買行動 研究*. 단국대석사학위 논문.
- 金順心. (1990). *洗濯용 洗劑의 種類와 使用法*. *농촌생활과학*, 11(2), 52-54.
- 南相瑯. (1988). *洗劑의 使用 및 洗濯方法에 관한 調査 研究*. *중앙대학교 家庭 文化論叢*, 2.
- 박찬모. (1992). 의류제품 세탁용 합성세제(1). *의류기술*, 16(2), 65-74.
- 배정숙. (1991). 최근 세제동향과 합성세제의 안전성 및 환경오염.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 제6집, 107-121.
- 성수광. (1997). *의류학개론*. 교문사.
- 안영무. (1995). *섬유학*. 학문사.
- 李鎮一. (1994). *우리나라 消費者의 가정용 洗劑製品 購買行動에 관한 實證的 研究*.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 진주범. (1992). 섬유와 세제(계면활성제)의 공해문제(II). *의류기술*, 16(1), 28-37.
- 차옥선, 세탁문화연구회. (1999). *우리의 세탁문화 100년*. 경춘사.
- 홍사육, 한상육, 김연화, 조윤주, 진윤숙. (1996). *소비생활과 세제*. 신광문화사.